

## 특허청, 물질특허 활용 위한 대책 마련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물질특허 제도 연구, 특허정보 분석 등을 통하여 물질특허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질특허연구회'를 지난 4월 20일 출범시켰다.

올해로 물질특허제도 도입('87년 7월) 18년째를 맞이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출범된 '물질특허연구회'의 창립총회는 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의약 및 화학산업 관련 협회·업계 관계자 등 연구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물질특허제도가 국내 특허제도 및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분석' 연구용역사업 결과물과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통계분석 등 2건의 주제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연구회에는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 존속기간 연장여부, 존속기간 만료일 등 특허동향 분석과 상업화 여

부, 매출현황, 경제적 가치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관련 분쟁사례 및 대응 전략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회 활동은 국내 관련업체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물질 연구개발 및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1천2백7건으로 이중 8백19건이 소멸되었고 3백88건이 존속중이어서 특허권의 유지비율은 약 32%로 나타났다. 존속기간 만료 예정건 중 출원인별 '상위 톱(TOP) 10'에는 ㈜엘지, 화이자, 미쓰비시, 메텔 파마슈티칼스,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브, 쉵스트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회는 특허청 생명공학과장을 회장으로 청 내 심사관 30명, 청 외 회원 16명 등 총 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특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신청 : 특허청 생명공학과 이충재 사무관  
(T:042-481-5536, email:leecj@kipo.go.kr)

## 한국 연구개발 투자비중 세계 5위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의 과학 위상도 세계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기획예산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백서(OECD FACT BOOK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5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03년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정부와 민간부문을 합쳐 19조6백90억원으로 GDP의 2.64%를 차지했다. 2002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R&D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일본, 아이슬란드 밖에 없다.

물론 투자금액만을 놓고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제대국보다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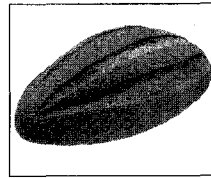
뒤떨어진다. 하지만 각국 경제력 차이를 감안해 구매력지수로 GDP 대비 R&D 투자 규모를 환산하면 0.78%로 미국(1.07%), 프랑스(1.07%)보다는 적지만 독일(0.80%), 영국(0.77%), 일본(0.72%) 보다는 앞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R&D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논문 발표 수와 미국 특허 등록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특허등록 건수의 경우 '99년 3천5백68건, 세계 7위에서 2003년 4천1백32건으로 세계 6위로 단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국가연구력의 주요 척도로 쓰이는 '근로자 1천명당 연구원 수'는 우리나라가 6.4명으로 OECD 평균인 6.5명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건강 상식

## 늘고 싶지 않다면 ... 아침에 좋은 음식, 저녁에 좋은 음식

아침과 점심, 저녁 인체에는 각각 다른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럽 노화방지학회 설립자인 프랑스의 클로드 쇼사르 박사의 주장이다. '적시영양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그가 아침, 점심, 간식, 저녁 등 4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단을 노화방지클리닉 '라 프리 드 파리' 한국 지사와 공동으로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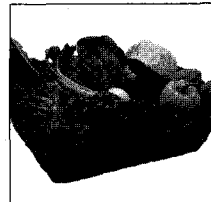
### 아침

뇌, 간 기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지방 섭취가 중요하다. 식단은 밥, 달걀, 나물, 생선 등이나 호밀 빵, 닭가슴살 또는 참치 샐러드, 야채수프 정도가 적당하다.



### 점심

위 기능과 소화액 분비가 활발하므로 특별히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식단은 콩비지 또는 된장찌개, 현미밥, 생선구이 정도면 충분하다.



### 저녁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양질의 지방(생선, 올리브 오일, 콩·들기름 등)과 가금류의 단백질, 그리고 야채를 권장한다. 그러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붉은색 육류와 밥, 국수, 빵 등 탄수화물은 신장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도록.

튀김 류, 탄 고기, 단 음식, 디저트, 젓갈 류, 술, 크림 넣은 커피, 패스트푸드, 혈당수치가 높은 음식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혈당 수치가 높은 음식은 순서대로 하면 빵, 꿀, 감자, 당근, 떡, 수박, 아이스크림, 설탕, 프렌치프라이드, 흰 쌀밥, 건포도, 고구마, 바나나, 파스타, 망고 등이다. 반대로 혈당 수치가 낮은 음식은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녹색 야채, 땅콩, 콩, 다크 초콜릿(코코아 70%), 체리, 포도, 자두, 복숭아, 탈지우유, 딸기, 호밀, 오렌지, 사과, 오토밀, 곡물 파스타, 현미 등의 순이다. 그 밖에 모든 채소와 야채는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수박과 당근, 멜론은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일반적으로 토마토 등 붉은색 계열 야채와 채소는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블루베리 등 자주색 계열은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오렌지 등 노란색 계열은 항산화 효과가, 마늘과 파슬리, 브로콜리 등 흰·녹색 계열은 항암·항산화 효과가 있다.

오늘이마요는 한국표준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 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가도니'에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가도니란,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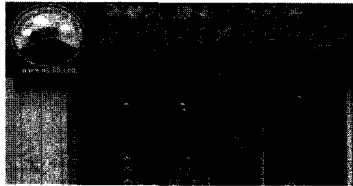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 상표로 보호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표법 중 개정법률'이 지난해 말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 상표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상표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상표법시행령 등 개정안에 따르면, 유명 지역특산품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의 특성 및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등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과 함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



오는 7월부터는 '상표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 등이 활성화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청에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상표법시행령 등이 상반기 중에 확정되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전에는

'보성녹차' 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칭 등을 수반한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산지) 또는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특허컨설팅센터, 안산에 문 열다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 특허정보종합 컨설팅센터가 지난 4월 18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1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특허정보 분석과 컨설팅을 통

해 중소·벤처기업과 개인 발명가가 특허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센터 내에는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사업화 컨설팅등이 상주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나

특허관리를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경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센터 (031-500-3042, 3400)로 연락하면 된다.

# 지식재산권 문제 걸려 사업화 어렵다

국내 기업들이 제품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선행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전략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4월 6일,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백80개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허 등 IP 문제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에 영향을 받은 기업은 전체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8.9%에 달했다. 대기업은 63%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중소·벤처기업(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단계는 사업화 단계가 39.3%로 가장 많았고 사업화 검토 단계(28.9%), 연구수행 단계(25.9%)의 순이었다. 이 영향으로 '연구 방향을 수정했다'는 기업이 53.1%나 됐고 사업화 검토를 중단한 기업은 14.6%에 달했다.

#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서 또 패소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국내 업체와의 상표분쟁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국내 3개 토종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로고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잇따라 냈지만 전패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7일 스타벅스가 국내 커피 체인점인 카고스에 대해 '스타벅스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달은 꼬' 로고로 인해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는 국내 커피 체인점 '엘프레야'와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이 분쟁에서는 '엘프레야'가 승소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벅스 로고와 마고스의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며 '발음도 각기 달라 서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마고스가 2004년 8월 문제의 상표를 등록하자 같은 해 11월 무효 심판을 냈었다.

스타벅스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8일 국내 커피 체인점인 엘프레야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도 졌으며, 지난 같은 달 7일에는 국내 외식업체인 벽멀리건스가 스타벅스와의 상표 분쟁에서 승소, 판심을 끌었다.



# 전 제너럴 일렉트릭 CEO 잭 웰치의 어드바이스 '좋은 리더가 되는 법 8가지'

세계 최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CEO로 21년간 군림하다 2001년 물러난 잭 웰치 전회장이 재혼한 부인 수전 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과 함께 '승리'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경영 철학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을 발췌, 소개한다.

1. 회의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 풀리게 하라 : 리더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만약, 이러면, 왜 안될까?, 어떻게' 등 이라고 물어야 한다.
2. 리더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낙관적인 생각이 전 직원의 피부속까지 침투하도록 해야 한다 : 긍정적이고 쾌활한 리더의 조직엔 긍정적이고 쾌활한 사람들이 가득 차고, 침울한 사람은 비슷한 무리에 둘러싸인다.
3. 자신의 비전을 부하들이 보고, 체험하고 호흡하게 하라 : 일선 직원들까지 비전을 공유하게 하라. 비전을 체감하고 호흡하게 하려면 급여든, 보너스든, 보상책을 사용하라.
4.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는 용기와 뱀심 있는 결단력을 가지라 : 해고나 비용 삭감 등 힘든 결정 때라도 자기 견해를 분명히 설명하라. 리더는 인기 대회 출전자다 아니다. 때론 뱀심에서 나오는 결정을 내려라.
5.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데 본이 되라 : 많은 매니저들은 부하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시키고 실패하면 단번에 목을 친다. 직원들이 실험하게 하려면 스스로 본이 되어 위험을 감수하라. 학습도 먼저 실천하라.
6. 끊임없이 평가·지도하고, 자신감을 쌓게 하라 : 평소에 늘 지도·비평·지원을 통합하고, 적재적소에 책임자가 배치되게 하라.
7. 솔직함과 투명함, 신용을 통해 신뢰를 확립하라 : 때로 나쁜 소식(임박한 해고 따위)을 전해야 할 때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일이 잘못 됐을 때 책임을 지고 호경기 때 칭찬을 아끼지 말라.
8. 축하 하라 : 축하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분위기를 만든다. 일은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 한 움큼을 때서 축하에 할애하라.

# IT기술 대만 유출한 40대 징역 3년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정보를 대만에 넘기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지난해 12월 7년여만에 검거된 40대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중환 판사는 지난 4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3)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피고인이 국내 IT 산업 주요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것은 좁게는 관련업체에서, 넓게는 국가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을 퇴사한 뒤 삼성전자, LG반도체 연구원들을 영입, '97년 5월부터 '98년 1월까지 총 5백여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어 일부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